

# 클러스터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선호표현 연구 - 보조사 '-라도' + 직유 표현을 중심으로\*

신혜정

## 차 례

1. 서론
2. 'as if' 구문의 한국어 번역
3. 번역가 문체 판별
4. 결론

## 1. 서론

번역학에서 문체(style) 연구는 원천 텍스트의 문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의 초기 접근을 지나 최근에는 번역 텍스트 중심의 문체 연구로 발전되었다. 번역학에서 문체를 연구하는 이러한 흐름을 베이커(Baker, 2000: 242-246)는 “번역에서 문체(style in translation)”와 “번역의 문체(style of translation)”로 나누어 설명한다. 번역(학)에서 문체는 주로 번역 수준 평가(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는데, 하우스(House, 1977/1981, 199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즉,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한가, 원천 텍스트의 ‘문체’를 번역 텍스트가 얼마나 잘 재현(reproduce)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Baker, 2000: 242). 파크스(Parks, 1998) 또한 원천 텍스트 저자의 문체에 주목하여 번역가<sup>1)</sup>의 원천 텍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정호정(2007)은 번역학 연구에서 동일한 현상이나 개념 설명에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어 쓰이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번역하는 사람’을 일컫는 ‘역자’, ‘번역자’, ‘번역사’, ‘번역가’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중 ‘번역사’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스트 문체 구현 정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Winters 2005: 22).

베누티(Venuti, 1995)와 허먼스(Hermans, 1996)는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가의 존재(presence)에 주목하여, 번역가가 어떤 번역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번역가의 가시성(translator's visibility)” 또는 “번역가의 목소리(translator's voice)”가 드러날 수도, 감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번역 텍스트에 드러나는 번역가의 존재와 번역가의 개입을 논하고 있으나 그 관심이 번역가의 문체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와 달리 베이커(2000)는 번역 텍스트(TT) 자체에 주목하여, TT를 중심으로 한 번역가 문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베이커는 번역가의 선택기호(preferences)·언어습관의 종합체로서 TT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번역가 문체를 살펴보고자 했다. 베이커가 정의하는 “번역의 문체(style of translation)”의 범주에는 역자 서문, 역자 후기, 각주, 역자 주(註) 등을 비롯한 일관된 번역 전략의 사용뿐만 아니라, 번역가가 어떤 텍스트를 번역할 것이냐의 선택까지도 포함된다.

이상의 설명처럼 베이커의 문체 연구의 초점은 번역가의 선택에 맞춰져 있다. 물론 원천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번역 텍스트의 문체를 분석하지만, 핵심은 번역가의 선택이 특정한 언어적 양상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 선택을 한 의도와 선택의 기능 및 효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동일 작가의 동일 작품을 각기 다른 출판사 및 번역가가 번역, 출판하는 경우가 한 해에도 여러 편에 달하는 오늘날의 출판현실에서 번역가의 문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이다. 특히 특정 출판사 또는 편집부와 오래 일하는 다작 번역가의 경우 해당 번역가의 문체 연구는 전집류 등을 구입하는 독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출판계에서 갈수록 번역 출판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독자의 기대가 커지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가 문체 연구는 그

---

나타났으며, 필자가 본 논문에서 본래 사용한 용어도 ‘번역사’였다. 그러나 본 논문이 문학번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번역사’ 대신 ‘번역가’를 제안한 익명의 심사위원을 따라, 더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번역가’를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였다. 정호정(2007: 192)은 “직업적 훈련 여부에 관계없이 번역에 매우 능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번역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의 의미로서 ‘번역가’를 설명한다.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이다.

여기서 번역가의 문체(translator's style)란 한두 번의 예외적인 선택이 아닌, 번역가가 선호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양식(patterns of choice)으로서 다른 번역가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사용으로 정의된다(2000: 245). 윈터스(Winters, 2005: 23)는 베이커의 표현을 빌려, 번역가가 어떤 전략을 쓰든지 TT에 일관되게 항상 존재하는 번역가 특유의 “지문(thumb-print)”이라 설명한다.

이처럼 번역가 문체 연구는 번역가 특유의, 반복적인 언어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복수의 번역 텍스트(multiple TTs)를 코퍼스로 구축, 활용한다. 번역 코퍼스를 활용한 최근의 연구로는 베이커(2000, 2004), 미하일로프와 빌리카(Mikhailov & Villikka, 2001), 윈터스(2005, 2007, 2009), 보소(Bosseaux, 2007), 살단하(Saldanha, 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에는 코퍼스 분석 도구의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이 주로 활용된다. 코퍼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표현이나 다른 번역가에 비해 특정 번역가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선호표현을 바탕으로 번역가의 언어 사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Great Expectations*에서 높은 빈도로 쓰이는 'as if' 구문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흥미로운 현상을 번역가 문체와 관련하여 확대·발전시킨 연구이다. *Great Expectations*의 한역본 『위대한 유산』 3종의 'as if' 번역을 빈도 분석한 결과, 유독 한 TT에서 보조사 '-라도'와 결합한 직유 표현의 쓰임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었다(신혜정, 2013). 이에 해당 TT 번역가의 '-라도' + 직유 표현이 번역가의 선호표현인지, 그리고 이것을 번역가의 문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as if' 구문의 한국어 번역

### 1) 디킨스의 'as if'

디킨스는 *Dombey and Son* (1848)에서 414회, *David Copperfield* (1850)에서 391회, *Our Mutual Friend* (1865)에서 392회<sup>2)</sup> 등 작품에서 'as if'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각각의 텍스트 길이는 358,641 단어, 358,527 단어, 327,978 단어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186,604 단어)의 *Great Expectations* (1861)<sup>3)</sup>에서도 'as if'는 266회 등장한다. 디킨스의 'as if' 사용은 당대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가 난다. 트롤럽(Trollope)의 *Doctor Thorne* (1858)과 *Frameley Parsonage* (1860)에서는 'as if'가 각 5회씩 쓰였고, 전체 306,970 단어인 새커리(Thackeray)의 *Vanity Fair* (1848)에서는 135회 사용되었다(Farina, 2011: 427).

### 2) 『위대한 유산』 코퍼스의 '-라도' + 직유 표현

선행연구(Mahlberg, 2007a, 2007b; Farina, 2011)를 통해 디킨스의 *Great Expectations*에서 'as if' 구문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Great Expectations*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하기 위해 번역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 출판본 중에서 품절, 절판,

2) 파리나(Farina, 2011: 427)는 *Dombey and Son* (2002년 펭귄판), *David Copperfield* (1990년 노턴판), *Our Mutual Friend* (1997년 펭귄판)의 'as if' 횟수를 각각 411회, 393회, 392회로 기록하고 있으며, 말베르크(Mahlberg, 2007b: 26)는 각각 413회, 393회, 392회로 적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본문의 *Dombey and Son* 414회, *David Copperfield* 391회, *Our Mutual Friend* 392회는 각각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의 전자 텍스트(e-text) 2013년 5월, 2013년 3월, 2012년 12월 출판/업데이트본을 코퍼스 분석도구 워드스미스(WordSmith)로 분석한 수치이다. 각자 분석에 사용한 텍스트의 출판본이 상이하며 서문(preface)의 포함 여부 등 차이로 인해 이러한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avid Copperfield*의 서문에 'as if'가 2회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3) 코퍼스 분석에는 1867년판을 사용하였다.

요약분을 제외한 3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은 『위대한 유산』 번역 코퍼스의 세부정보이다.

<표 1> 『위대한 유산』 코퍼스 정보<sup>4)</sup>

	ST	TT1	TT2	TT3
분석 텍스트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1, 2	위대한 유산 1, 2
출판년도	1861/1867	2005	2007	2009
출판사	Project Gutenberg	혜원	북스캔	민음사
저자 및 번역가	Charles Dickens	김태희	이순주	이인규

번역본 3종(TT1, TT2, TT3)의 'as if' 번역을 분석하기 위해 코퍼스 분석 도구 워드스미스(Scott, 2010)를 사용해 2어절 클러스터(cluster) 분석을 하였다.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위처럼 같이 붙어 쓰이는 구조로서 텍스트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2어절 클러스터란 2개 어절이 한 덩어리처럼 연속하여 쓰이는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ST 전체의 총 266회의 'as if' 중에 대화문에 나타나는 10회를 제외한 256회의 'as if' 번역을 분석하였다. 세 TT 코퍼스의 'as if' 번역에 대한 2어절 클러스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면 제약상 발생 빈도가 5회 이상 되는 클러스터만 제시하였다. 음영 표시는 세 TT 코퍼스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클러스터 항목을 나타낸다.

4) 번역 코퍼스 설명과 클러스터(cluster) 분석은 신혜정(2013)을 참고하였다.

<표 2> TT 코퍼스 'as if' 번역 2어절 클러스터 목록

순위	클러스터	빈도	순위	클러스터	빈도	순위	클러스터	빈도
	TT1			TT2			TT3	
1	것 같았다	17	1	한 것처럼	18	1	한 것처럼	40
2	마치 내가	15	2	것 같았다	14	2	것처럼 말이다	16
3	한 듯이	12	3	되는 것처럼	10	3	있는 것처럼	15
4	한 것처럼	10	4	있는 것처럼	10	4	것 같은	14
5	그는 마치	8	5	할 것처럼	10	5	마치 내가	13
6	것처럼 보였다	7	6	하는 것처럼	9	6	있기라도 한	13
7	것 같은	5	7	것 같은	6	7	되는 것처럼	12
8	것만 같았다	5				8	것처럼 보였다	10
						9	마치 나를	10
						10	마치 그	9
						11	것 같았다	7
						12	마치 내	7
						13	그 순간	5
						14	마치 자신의	5
						15	있는 듯한	5
						16	한 것	5

<표 2>에서 각 TT 코퍼스의 클러스터 목록을 대조해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TT3 클러스터 목록의 1순위 항목 ‘한 것처럼’은 TT1과 TT2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나 TT3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TT1과 TT2의 ‘한 것처럼’의 발생 빈도는 각각 10회, 18회이나 TT3의 빈도는 40회이다. TT3이 TT1과 TT2에 비해 텍스트 길이가 30%정도 길긴 하지만<sup>5)</sup>, 발생 빈도가 2~4배 차이 날 정도의 요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TT3의 ‘한 것처럼’의 빈도 40회는 TT1과 TT2의 최상위 항목 ‘것 같았다’ 17회, ‘한 것처럼’ 18회, 그리고 TT3의 2순위 항목 ‘것처럼 말이다’의 16회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

5) TT1과 TT2의 총 어절 수는 각각 12만7천962, 12만7천998이며, TT3은 16만7천95이다.

이다. 워드스미스의 용례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 '한 것처럼'의 사용 맥락을 살펴보니 TT3에서 '-라도 한 것처럼'이 40회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것처럼'은 40회 모두 '-라도 한 것처럼'의 형태로 쓰인 것이다. TT1과 TT2에서 '-라도 한 것처럼'의 빈도는 각각 3회, 18회로 나타났다. 이로써 TT3에서 '-라도 한 것처럼'이 특징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TT 클러스터 목록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이점은 TT1과 TT2에는 없고 TT3에만 있는 클러스터 항목 '있기라도 한'이다. TT3에서 '있기라도 한'의 빈도는 13회인데 그 중 10회는 '있기라도 한 것처럼'으로 쓰였다. 나머지도 '있기라도 한 듯했다',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있기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로 각 1회씩 쓰여 모두 '있기라도 한'에 직유 표현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있기라도 한'은 TT1과 TT2에서는 빈도수가 5회 미만으로 <표 2>의 클러스터 목록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각 3회, 2회 쓰였다. '있기라도' 1어절만의 용례색인을 살펴보니 TT1에서 '있기라도 한 듯(이)', '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있기라도 하듯이'의 형태로 총 5회 쓰였고, TT2에서는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있기라도 하는지'의 형태로 총 3회 쓰였다. TT3에서는 상기 설명과 같이 13회 모두 '있기라도 한'의 형태로 쓰였다. 이를 분석하면 '있기라도 한'과 '-처럼', '듯(이/한)', '-같은' 등의 직유 표현이 결합한 형태는 TT3에서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보조사 '-라도' + 직유 표현은 『위대한 유산』의 'as if' 번역에 있어서 TT3 번역가가 선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TT3을 TT1, TT2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보조사 '-라도' + 직유 표현으로 번역된 'as if'의 예를 아래에 몇 가지만 제시한다.

예문 (1)

ST: Something clicked in his throat *as if* he had works in him like a clock, and was going to strike. (Ch. 3) (이하 필자강조)

TT1: 그의 목구멍에서 달각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그의 몸속에 시계 장치가 있어 시간을 알려려고 추를 때리는 것 같았다.

TT2: 그때, 마치 그의 몸 안에 캐종시계 같은 게 있어 막 시각을 알리는 종을 치러

는 것처럼 뭔가가 철컹하고 그의 목구멍에 걸렸다.

TT3: 그의 목구멍에서 뭔가 짹 짹 하고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마치 그의 몸 안에 시계 같은 기계장치가 있어서 막 시간을 알리는 종이라도 치려는 듯한 소리였다.

예문 (2)

ST: [M]aking her crutch stick play round me, *as if* she, the fairy godmother who had changed me, were bestowing the finishing gift. (Ch. 19)

TT1: 마치 나를 변화케 한 요정인 대모(代母)가 마지막 선물을 주듯이 자신의 지팡이를 한 바퀴 돌렸다.

TT2: 그녀는 요정 할머니가 날 신사로 변신시키고 마지막 선물을 부여하듯이 내 앞에서 목발을 한 바퀴 빙 돌렸다.

TT3: 그녀는 자신의 목발 모양 지팡이를 내 주위로 장난스럽게 한 번 휘둘렀다. 마치 나를 변화시킨 요정 대모(代母)인 그녀가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선사하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예문 (3)

ST: Mr. Jagger's room was lighted by a skylight only, [...] and the distorted adjoining houses looking *as if* they had twisted themselves to peep down at me through it. (Ch. 20)

TT1: 제이거스 씨의 방은 천장으로만 빛이 들어왔으므로 ... 천장을 통해 나를 내려다보기 위해 집들이 비뚤어진 것처럼, 옆에 붙은 집들도 비뚤어 보이게 했다.

TT2: 제이거스 씨의 방은 천장 채광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부여서 ... 인접해 있는 일그러진 주택들은 그 창을 통해 날 엿보기 위해 일부러 몸을 뒤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TT3: 제이거스 씨의 방은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만 조명이 되었는데, ... 그리로 보이는 뒤틀린 인접한 집들은 마치 그 창문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 일부러 몸을 비틀고 있더라도 한 것 같았다.

예문 (4)

ST: Their keeper [...] stood with them beside him, looking on at the putting-to of the horses, rather with an air *as if* the convicts were an interesting Exhibition not formally open at the moment, and he the Curator. (Ch. 28)



- TT1: 그는 죄수들 옆에 서서 말에게 떠날 준비를 시키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죄수들이 미공개된 흥미로운 전시품이고, 자기는 전시장의 관리인인 듯한 태도로.
- TT2: 그들과 나란히 서서, 자기는 박물관 관장이고 그들은 현재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재미있는 전시물인 것 같은 태도로 말이 퍼팅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다.
- TT3: 그들을 곁에 세워놓은 채 마차에 말들을 매는 광경을 구경하며 서 있는 그의 태도는 마치 죄수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흥미로운 전시 작품이고 자신은 그 전시품 관리자이기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예문 (5)

ST: Now my young friend, my guardian began, *as if* I were a witness in the box, [...]. (Ch. 36)

TT1: “자, 나의 친구, ...”

내 보호자는 마치 내가 증언대에 앉은 증인인 것처럼 말을 시작했다.

TT2: “자, 젊은 친구.”

재거스 씨는 마치 증인을 심문하듯 말을 시작했다.

TT3: “자, 내 젊은 친구.” 내 후견인은 마치 내가 증인석에 앉은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시작했다.

상기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T3에 쓰인 '-라도'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 정도”(홍윤혜, 2007: 495)라는 의미의 비유 기능을 하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의 의미의 보조사 '-라도' 그리고 연결어미 '-라도'와 구분된다. 부사(副詞) ‘금세’에 '-라도'가 붙은 형태인 ‘금세라도’와 ‘조금이라도’ 역시 상기한 비유의 기능을 하는 보조사 '-라도'의 쓰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례색인에서 개별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예문 (2)와 (3)에서는 TT3에 클러스터 6순위 항목 ‘있기라도 한’이 공통적으로 쓰였다. 특히 예문 (2)에서는 ‘있기라도 한’(13회)에 2순위 항목 ‘것처럼 말이다’(16회)가 연이어서 쓰였다. 또한 예문 (3)에서는 ‘있기라도 한’에 뒤따라 11순위 클러스터 ‘것 같았다’(7회)가 쓰였다. 예문 (5)에서는 7순위 클러스터 ‘되는 것처럼’(12회)이 ‘-(이)라도’에 이어 나왔다.

위에서 TT3 1순위 클러스터 ‘한 것처럼’의 용례 40회 모두가 비유의 보조사 ‘-라도’와 결합하여 ‘-라도 한 것처럼’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TT3 ‘as if’ 번역에 등장하는 ‘되는 것처럼’의 빈도 12회 중에서 11회가 ‘-라도 되는 것처럼’으로 쓰였다. TT3 코퍼스 전체의 용례를 보아도 ‘-라도 되는 것처럼’은 13회로, 총 19회(20회 중 대화문 1회 제외)의 ‘되는 것처럼’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TT3에서 ‘한 것처럼’과 ‘되는 것처럼’은 거의 대부분 ‘-라도’와 결합한 형태로 반복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보조사 ‘-(이/기)나’ + 직유 표현

‘as if’의 용례색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비유 의미의 ‘-라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보조사 ‘-(이/기)나’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보조사 ‘-(이/기)나’의 뜻과 쓰임은 다음과 같다.

[양보의 대상이나 양보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이라도’의 뜻.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 예) ■ 자기가 무슨 부모나 되는 듯이 말끝마다 참견이다.  
 ■ 그 아이는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미안해했다.  
 ■ 대성이와 병규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이희자이종희, 2006: 433)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ST와 TT의 용례를 아래 제시한다.

예문 (6)

ST: He answered quite seriously, and used the word *as if* it denoted some profession. (Ch. 40)

TT1: 그는 이 말을 마치 어떤 직업이나 되는 듯이 신중하게 사용했다.

TT2: 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고, 그게 무슨 직업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다.

TT3: 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했고, 또 마치 어떤 전문직이라도 뜻하는 단어인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했다.

ST의 총 256회의 'as if' 발생 빈도 중에서 TT에 나타난 보조사 '-라도' 및 '-(이/기)나'의 빈도를 조사했더니 TT1은 57회('-라도' 42회, '-(이/기)나' 15회), TT2는 74회('-라도' 71회, '-(이/기)나' 3회), TT3은 116회('-라도' 115회, '-(이/기)나' 1회)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TT3 번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라도' + 직유 표현을 선호하는 데 반해 '-(이/기)나'의 사용은 피한다는 점이다.

### 3. 번역가 문체 판별

#### 1) 번역가 문체 판별 요건

2장에서 번역 코퍼스 TT1, TT2, TT3의 대조를 통해 TT3이 다른 TT들에 비해 비유의 보조사 '-라도' + 직유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확인된 TT3 번역가의 선호표현이 번역가의 문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번역가의 다른 번역물에서도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번역가 문체 검증을 위해 먼저 번역가 문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서 1장에서 베이커(2000)와 윈터스(2005)의 번역가 문체 정의를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베이커(2000)는 문학비평, 문체론 등에서 정의하는 문체의 개념에서 나아가, 원문(original writing)이 아닌, 번역(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번역가 문체를 밝히고자했다. 원문에서 '파생된' 텍스트인 번역문에서 문체를 생각할 때 베이커에게 중요한 질문은 원천 텍스트(ST) 문체의 반영(reflection)이 아닌, 온전히 번역가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문체 자질(feature)들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었다(2000: 246-248). 즉, TT에서 특정 어구가 고빈도로 발생하는 것이 ST의 빈도를 그대로 옮겨온(a direct carrying over)때문(Baker, 2004: 180)인지, 번역가가 해당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가 문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베이커가 제시한 또 하나의 요건은 번역

가 선택(linguistic choices)의 향상성과 일관성이다. 특정 번역가의 번역문에서 고빈도로 발생하는 정형화된 어구가 해당 번역가의 문체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 번역가의 각기 다른 TT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Baker, 2004: 182).

살단하는 베이커의 요건들에, 번역가의 동기(motivation)까지 고려하여 총 다섯 가지의 번역가 문체 판별 요건을 제시한다.

- 해당 번역가의 다수의 번역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해당 번역가의 번역물을 다른 번역가들의 번역물과 구분 짓는다.
- 일관된 표현 양식을 이룬다.
- 번역가가 '의도한', 뚜렷한 기능이 있다.
- 전적으로 ST 저자나 ST 문체의 영향 또는 언어상 제약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A 'way of translating' which

- is felt to be recognizable across a range of translations by the same translator,
- distinguishes the translator's work from that of others,
- constitutes a coherent pattern of choice,
- is 'motivated', in the sense that it has a discernable function or functions, and
- cannot be explained purely with reference to the author or source-text style, or as the result of linguistic constraints. (Saldanha, 2011: 31)

살단하의 첫 번째 요건은 앞서 설명한 베이커의 요건들 중 두 번째와 관련된 것으로, 번역가가 다수의 번역물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해당 번역가의 번역물들로 구성된 코퍼스를 구축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베이커의 첫 번째 요건은 TT의 특정 자질이 저자와 번역가 중 누구에 귀속되느냐, 저자와 번역가 중 누구의 선호표현이냐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앞선 2장에서처럼 동일 ST에 대한 복수의 TT들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 2) 번역가 이인규의 영-한 병렬코퍼스 분석

먼저 살단하의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위해 2장 2절에서 분석한 『위대한 유산』 TT3 번역가 이인규의 번역물들을 살펴본다. 이인규는 디킨스를 전공한 영문학자 및 교수로, 번역한 책으로는 『위대한 유산』, 『채털리 부인의 연인』, 『라셀라스』, 『노인과 바다』 등이 있다. 현재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의 완역판 번역본 중에서 『위대한 유산』과 함께 『채털리 부인의 연인』 병렬코퍼스를 구축해 분석하였다.<sup>6)</sup> <표 3>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 번역 코퍼스의 세부정보이다.

<표 3> 『채털리 부인의 연인』 코퍼스 정보

	ST	TT-A	TT-B	TT-C
분석 텍스트	Lady Chatterley's Lover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2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2	채털리 부인의 연인
출판년도	1928	2003	2009	2010
출판사	Project Gutenberg Australia	민음사	웅진씽크빅	현대문화센터
저자 및 번역가	D. H. Lawrence	이인규	최희섭	이은경

보조사 '-라도', '-(이/기)나' + 직유 표현이 이인규의 번역 『위대한 유산』과 마찬가지로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도 선호표현으로 반복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ST 및 각각의 TT들에 나타난 'as if'와 '-라도' 또는 '-(이/기)나' + 직유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6)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의 『라셀라스』와 헤밍웨이(Hemingway)의 『노인과 바다』는 기본적으로 'as if'의 빈도가 낮아 분석 코퍼스에서 제외하였다. 『라셀라스』는 'as if'가 1회 등장하며, 『노인과 바다』에서는 'as if' 대신 'as though'가 8회 쓰였다. 『노인과 바다』 번역본 3종의 'as though' 번역을 살펴본 결과 '사실은 아니나 그 정도'라는 비유 의미의 '-라도'는 김옥동(2012: 65)에서 1회 쓰였다.

『위대한 유산』의 'as if' 빈도는 대화문을 제외하고 총 256회이며, 그 중 이를 번역한 횟수는 TT1 239회(생략 17회), TT2 241회(생략 15회), TT3 254회(생략 2회)이다. <표 4>는 『위대한 유산』의 'as if' 번역 빈도 자료이다.

<표 4> 『위대한 유산』 'as if' 번역 빈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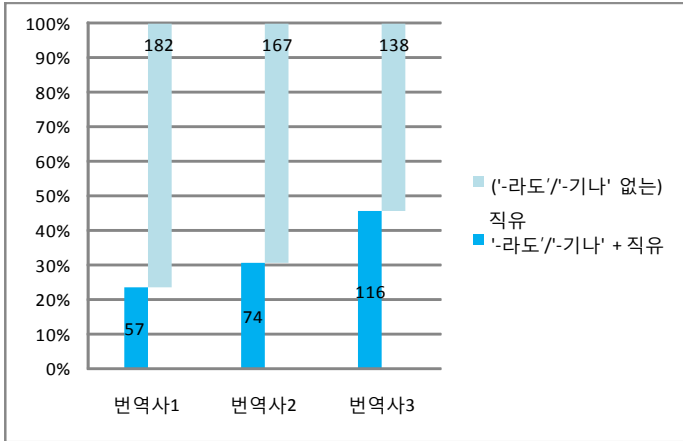
위대한 유산	'-라도/ -(이/기)나' + 직유	('-라도/-(이/기)나' 없는) 직유
번역가1 (TT1)	57	182
번역가2 (TT2)	74	167
번역가3 (TT3)	116	138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as if' 빈도는 대화문을 제외하고 총 83회이며, 이를 번역한 횟수는 TT-A 83회(생략 없음), TT-B 82회(생략 1회), TT-C 72회(생략 11회)이다. <표 5>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as if' 번역 빈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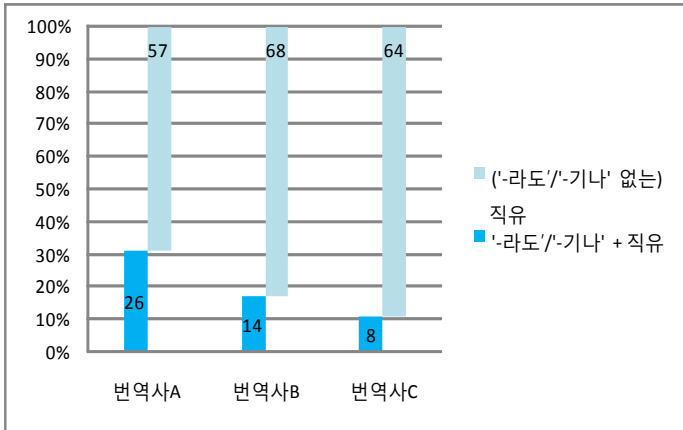
<표 5> 『채털리 부인의 연인』 'as if' 번역 빈도 자료

채털리 부인의 연인	'-라도/ -(이/기)나' + 직유	('-라도/-(이/기)나' 없는) 직유
번역가A (TT-A)	26	57
번역가B (TT-B)	14	68
번역가C (TT-C)	8	64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위대한 유산』 '-라도/'-기나'+ 직유 표현 상대빈도



<그림 2> 『채털리 부인의 연인』 '-라도/'-기나'+ 직유 표현 상대빈도

<그림 1> 『위대한 유산』에서 번역가3이 번역가1, 번역가2에 비해 '-라도'/'-기나' + 직유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TT의 '-라도'/'-기나' + 직유 표현 사용 빈도를 통계 조사한 결과 번역가3이 번역가1, 번역가2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번역가1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및 피셔

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 결과 p값은 0.000( $\chi^2 = 26.606$ ,  $df = 1$ )이었고, 번역가2와의 검정 p값은 0.000( $\chi^2 = 12.308$ ,  $df = 1$ )이었다. 반면, 번역가1과 번역가2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92$ ,  $\chi^2 = 2.843$ ,  $df = 1$ ).

<그림 2>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는 'as if'의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위대한 유산』보다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지만 역시 일관된 경향이 확인된다. '-라도'/'-기나' + 직유 표현의 상대빈도를 보면 <그림 1>의 번역가3과 <그림 2>의 번역가A가 동일인(이인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개의 'as if' 번역 텍스트 중에서 번역가3과 번역가A가 비율로 따졌을 때 '-라도'/'-기나' + 직유 빈도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채털리 부인의 연인』 번역가A는 번역가B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번역가B와의 카이제곱 및 정확검정 결과는 p값 0.033( $\chi^2 = 4.562$ ,  $df = 1$ )이었다. 번역가A의 번역가C와의 검정 결과는 p값 0.002( $\chi^2 = 9.200$ ,  $df = 1$ )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그림 2>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위대한 유산』과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 공통적으로, '-라도'/'-기나' 없이 쓰인 직유의 비율이 '-라도'/'-기나'와 함께 쓰인 경우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한 번역코퍼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라도'/'-기나' 없는 직유가 일반적인, 무표적(unmarked)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라도'/'-기나' 없는 직유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를 두고 굳이 '-라도'/'-기나' + 직유를 쓰는 것은 번역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에 해당하는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의 경향과도 어긋난다. 이는 '-라도'/'-기나' 없는 직유라는 보다 손쉽고, 널리 쓰이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상기한 다섯 번째 요건에 언급된 언어상 제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번역가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선택한 것으로, '-라도'/'-기나' + 직유가 이인규의 선호표현이며, 그의 문체임을 나타낸다.



## 4. 결론

앞 장에서 특정 자질이 번역가의 문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요건을 살펴보고, 서로 다른 ST를 번역한 TT들로 구성된 병렬코퍼스 두 쌍을 대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인규의 '-라도'/'-(이/기)나' + 직유 표현은 살단하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 이인규의 번역 문체에 속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위대한 유산』과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서 공통적으로 이인규의 '-라도'/'-(이/기)나' + 직유 표현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른 모든 TT에서는 '-라도'/'-(이/기)나' 없는 직유가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이인규의 TT들에서만 '-라도'/'-(이/기)나' + 직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도 이인규의 TT들은 'as if' 번역에 있어서 다른 번역가들의 TT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인규의 'as if' 번역은 대조 분석한 두 쌍의 병렬코퍼스에서 일관된 양식으로 나타났다. 무표적 형태인 '-라도'/'-(이/기)나' 없는 직유가 비율상 우세하지만 'as if', 'as though'의 번역에서 '-라도'/'-(이/기)나' + 직유 표현이 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또한 '-라도' + 직유를 선호하는 반면, '-(이/기)나' + 직유는 드물게 사용하는 경향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넷째, 번역가가 일반적인 표현인 '-라도'/'-(이/기)나' 없는 직유 대신에 '-라도'/'-(이/기)나' + 직유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어떤 동기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 표현이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기능<sup>7)</sup>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번역코퍼스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다섯째, ST 저자나 ST 문체의 영향 또는 언어상 제약 때문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도 있지만 번역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선택지(options)가 있고 그

7) 『위대한 유산』에서 'as if' 구문의 기능과 '-라도'/'-기나' 직유로 번역할 때의 효과 및 예시는 신혜정(2013)을 참고하라.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좋다면 번역가가 내린 선택은 그것이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날 때 번역가의 문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분석한 『위대한 유산』과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경우 TT1, TT2, TT3과 TT-A, TT-B, TT-C는 각기 동일 ST를 번역한 것이고 TL도 한국어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 TT간 번역 행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ST 문체나 언어상 제약에서 온다기보다는 번역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역가의 문체에 해당하는지는 복수의 TT들이 있는 여러 ST-TT 병렬코퍼스와, 한 번역가가 서로 다른 ST를 번역한 TT들로 구성된 병렬코퍼스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 코퍼스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문체를 논의하기에는 살펴본 언어현상이 ‘-라도’/‘-(이/기)나’ + 직유 표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번역문뿐만 아니라 한국어 비번역문(non-translated Korean text)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번역가가 일상 언어에서도 번역가 문체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타 번역가가 번역한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 평가를 하는 학술논문에서 이인규가 'as though'의 번역에 대해 ‘-라도’ + 직유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한 예도 찾아볼 수 있었다.<sup>8)</sup> 학술논문이긴 하나 작품 속 번역에 대한 대안 번역을 제안하는 것으로, 엄밀하게는 일상언어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코퍼스 자료를 확대해나간다면 보다 정밀하게 번역가 문체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ST, 번역가, 번역 언어, 텍스트 장르, 번역 시기 등이 동일한 복수의 TT들을 찾고 번역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코퍼스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번역가 문체를 주제로 한국어 언어현상을 연구<sup>9)</sup>한 몇 안 되는 논문이다. 둘째, 원천 텍스트 작가의

8) “flamed up *as though* with a sudden passion from within”을 “내부에서 갑자기 솟구쳐오르듯이 환하게 불꽃을 튀겼다”라고 옮겼는데, ... ‘내부에서 갑자기 정열이 솟구치기라도 하듯 환하게 타올랐다’ 정도로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정확할 것이다. (이인규, 2006: 184)

9) 본 논문 1장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코퍼스를 활용한 번역가 문체 연구가 여러 언어(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등)를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된

문체 및 번역투(translationese)와의 혼동을 방지하는, 번역가 문체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살단하의 번역가 문체 판별 요건을 제시하고 실제 검증을 통해 번역가 문체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의 문체 연구와 달리 코퍼스 위주 접근방식(corpus-driven approach)을 취했다. 기존의 코퍼스 기반(corpus-based) 연구가 주로 특정 이론 또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코퍼스를 이용했다면, 본 연구는 클러스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대상 표현을 찾아내는, 탐구식(exploratory) 연구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향후 번역가 문체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 및 아이디어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반면, 한국어 번역코퍼스를 분석한 번역가 문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문체 연구는 대부분 원천 텍스트의 문체 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인 용 문 헌

- 김옥동 역.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민음사. (Hemingway, E. (1952/2012). *The old man and the sea*. Paju, Gyeonggido: Munhakdongne).
- 신혜정. (2013). 「*Great Expectations* ‘as if’ 구문의 한국어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7권 3호, 273-290.
- 이인규. (2006).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대한 번역 점검」. 『어문학논총』, 제25권 2호, 175-199.
- 이희자·이종희. (2006).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정호정. (2007).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번역학 연구를 위한 용어 통일의 시급성」. 『통역과 번역』, 제9권 1호, 173-203.
- 홍윤혜. (2007). 「보조사 ‘-(이)라도’의 의미와 분포적 특성: ‘-(이)나’와 ‘-(이)나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8권 2호, 487-506.
- Baker, M.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_\_\_\_\_. (2004). A corpus-based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2), 167-193.
- Bosseaux, C.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 New York: Rodopi.
- Farina, J. (2011). Dickens's as if: Analogy and Victorian virtual reality. *Victorian Studies* 53(3), 427-436.
- Hermans, T.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House, J. (1977/1981).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2nd ed.). Tübingen: Gunter Narr.

- \_\_\_\_\_.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Gunter Narr.
- Mahlberg, M. (2007a). Clusters, key clusters and local textual functions in Dickens. *Corpora*, 2(1), 1-31.
- \_\_\_\_\_. (2007b). A corpus stylistic perspective on Dickens' *Great Expectations*. In M. Lambrou, & P. Stockwell (Eds.), *Contemporary Stylistics*, 19-31. London & New York: Continuum.
- Mikhailov, M. & M. Villikka. (2001). Is there such a thing as a translator's style? Rayson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Corpus Linguistics 2001 conference (Technical Papers 13)*, 378-385.
- Parks, T. (1998). *Translating style: The English modernists and their Italian translators*. London & Washington: Cassell.
- Saldanha, G. (2011). Translator styl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he Translator*, 17(1), 25-50.
- Scott, M. (2010). WordSmith Tools. Version 5.0. Liverpool: Lexical Analysis Software.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inters, M. (2005). *A corpus-based study of translator style: Oeser's and Orth-Guttman's German translations of F. Scott Fitzgerald's The Beautiful and Damned*. PhD thesis. Dublin City University. Dublin, Ireland.
- \_\_\_\_\_. (2007). F. Scott Fitzgerald's Die Schönen und Verdammten: A corpus-based study of speech-act report verbs as a feature of translators' style. *Meta*, 52(3), 412-425.
- \_\_\_\_\_. (2009). Modal particles explained: How modal particles creep into translations and reveal translators' styles. *Target*, 21(1), 74-97.

분석 텍스트

Dickens, C. (1861/1867). *Great Expectations*. Project Gutenberg.

<http://www.gutenberg.org/> (검색일: 2010. 12. 21.).

김태희 역. (2005). 위대한 유산. 서울: 해원.

이순주 역. (2007). 위대한 유산 1, 2. 서울: 북스캔.

이인규 역. (2009). 위대한 유산 1, 2. 서울: 민음사.

Lawrence, D. H. (1928). *Lady Chatterley's Lover*. Project Gutenberg

Australia. <http://gutenberg.net.au/> (검색일: 2013. 8. 28.).

이은경 역. (2010). 채털리 부인의 연인. 고양: 현대문화센타.

이인규 역. (2003).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2. 서울: 민음사.

최희섭 역. (2009). 채털리 부인의 연인 1, 2. 서울: 웅진씽크빅.

Abstract

## **An Exploration of Translator's Stylistic Preferences with a Focus on *as if* Clusters**

Hyejung Shi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a translator's frequent phrase is his favorite expression and verify it as the translator's own style. The study also aims to clarify the notion of translator style and presen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anslator style. Baker (2000, 2004) laid the groundwork for research on translator style in translation studies and her efforts were followed by a series of work by other translation scholars, including Winters (2005, 2007, 2009) and Saldanha (2011). In this study, the Korean auxiliary particle *rado* followed by simile expressions is examined in detail. Auxiliary particle *rado* with the function of hypothetical comparison is a favorite expression of the translator Lee In-gyu in his translations of Dickens's *Great Expectations* and Lawrence's *Lady Chatterley's Lover*. Following Saldanha's definition of translator style, the frequency and usage of *rado* were investigated in the English-Korean parallel corpora to determine whether that frequent feature is translator Lee's style and it is safe to call it his "signature" in his translations.

**Key Words:** cluster analysis, *as if* simile, translator style, auxiliary particle *rado* and *gina*, *Great Expectations*, *Lady Chatterley's Lover*  
클러스터 분석, 에즈 이프 직유, 번역가 문체, 보조사 '-라도'/'-기나', 『위대한 유산』, 『채털리 부인의 연인』

논문접수일: 2013.11.26

심사완료일: 2013.12.16

게재확정일: 2013.12.23

이름 : 신 혜 정

소속 : 조선대학교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본관 교수연구동 219호

이메일 : hjshin@chosun.ac.kr